

# 메모리 부진 속 시스템 선방... 하반기 실적 반등 기대

(반도체)

## 삼성전자 실적분석·전망

상반기 가격 하락... 수익률 치명적  
하반기 투자 계획, 예정대로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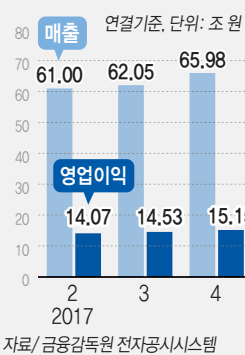
삼성전자 상반기 실적은 DS부문 부진에 크게 좌우됐다. 그 중에서도 메모리 반도체 부진이 치명적이었다. 상반기까지 가격 하락이 이어지면서 수익률이 크게 줄었다.

IM부문도 수익성 하락을 면치 못했다. 플래그십인 갤럭시S10과 갤럭시S10 5G 흥행에도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의 경쟁 심화와 마케팅 비용 증가 영향이다.

갤럭시S10 판매 둔화와 함께 갤럭시S9, 갤럭시노트9을 포함한 플래그십 판매량이 전 분기 대비 하락하고 마케팅 비용 증가가 영업이익 하락의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스마트폰 시장 수요가 정체된 와중에서도 중저가 라인업인 A 시리즈 판매량은 늘어 전체 스마트폰 판매량은 전분기 대비 증가했지만 중저가 제품 경쟁 심화로 낮은 가격을 유지하면서 수익성 개선에는 도움이 되지 못했다.

대신 데이터센터 고객사가 구매를 재개하기 시작했고, 고용량 메모리를 탑재한 모바일 보급이 늘면서 매출액은

## 삼성전자 실적 추이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선방했다.

특히 낸드플래시는 낮은 가격을 유지하면서 전 응용처에서 수요가 늘었다고 삼성전자는 밝혔다.

시스템 반도체는 오히려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고화소·빅픽셀 이미지센서와 5G모뎀 수요가 실적을 견인했다. 이미지센서 비중이 30%에 달했다. 파운드리도 모바일에서 쓰이는 8·10나노 AP와 이미지센서 부문을 중심으로 높은 수익을 만들어냈다.

디스플레이 부문 역시 2분기 1회성 수익 발생과 함께 고객 수요 회복으로 좋은 성적을 거뒀다.

CE부문은 가격경쟁 심화 등으로 수익성이 다소 줄었지만, 신모델 판매 증가와 프리미엄 비중 확대에 힘입어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

특히 계절적 성수기를 맞아 에어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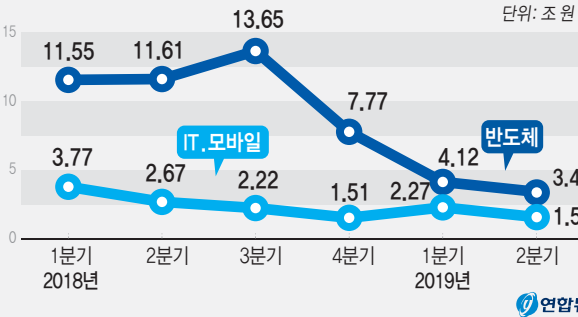
실적이 두드러졌으며, 무풍 에어컨이 두각을 나타냈다.

삼성전자는 부문별로 하반기 계획을 발표하며 실적 개선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외부 요인에 따른 불안정성이 있긴 하지만, 다양한 판매 전략을 통해 시장에 대응하고 기술 격차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메모리는 계절적 성수기와 고용량 메모리 사용 확대 등 시황 개선과 함께, 수출 제고로 수익성을 개선하고 초격차 전략도 계획대로 추진한다. 인위적인 감산 계획도 없음을 확실히 했다.

구체적으로는 D램은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제품을 생산해 공급하는 한편, 2세대 10나노(1y)를 확대함과 동시에, 1z 양산을 계획대로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1z에서 EUV 도입도 추진 중이다.

## 반도체·IM(IT·모바일) 사업 영업이익 추이



연말뉴스

낸드는 5세대 낸드를 기반으로 고부가 제품을 확대공급함과 동시에, 6세대 V낸드 양산으로 수익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구형 라인을 R&D로 전환하면서 자연스러운 감산 효과도 예상된다.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계절적 성수기 효과와 동시에 64메가픽셀 이미지센서와 7나노 EUV AP 등 고부가 제품을 확대 공급하면서 성적 향상을 노린다. 파운드리에서는 6나노 양산과 4나노 개발 완료를 통해 초격차도 지키기로 했다.

저조한 실적에도 하반기 투자는 그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미지센서 라인을 증설하겠다는 투자 계획도 소개했다.

디스플레이는 중소형 제품에서 스마트폰과 비스마트폰을 함께 강화해 위험 요소를 줄이고, FoD와 HIAA 등 차별화 기술을 앞세운다. 대형 제품에서는

8K와 프리미엄 TV에 중점을 두는 동시에 모니터와 같은 제품으로 수익성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좋은 성적을 거뒀던 CE 부문은 하반기에도 QLED와 초대형 TV 등 고부가 제품 판매 비중을 높여 가전제품 성수기 더 좋은 성적을 노린다는 방침이다. 8K TV와 비스포크냉장고, 공기청정기와 의류관리기 등 신가전에 주력하면서, B2B 사업을 강화해 지속적인 성장 발판도 마련한다.

IM부문만은 다소 방어적인 입장이었다. 하반기 스마트폰 시장이 성수기에 진입하지만 수요 둔화 지속이 예상되는 탓이다.

다만 갤럭시 노트10과 갤럭시 폴드 출시를 앞두고, 판매량 증가에는 큰 기대를 걸었다. 갤럭시 노트10 판매량은 갤럭시노트9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예상기도 했다. 아울러 운영 효율화를 통한 수익성 개선 노력도 약속했다.

삼성전자는 내년 이후 초격차 계획도 밝혔다. AMD와 협업을 통해 2년뒤 신제품을 내놓겠다고 기술적으로 큰 도움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퀀텀닷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지만 마이크로LED인 더월을 내년부터는 가정용과 대형 사이니지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분명히 했다.

/김재용 기자·구서윤 기자 juk@metroseoul.co.kr



삼성전자 디스플레이 깜짝 흑자 31일 삼성전자가 발표한 2분기 매출은 56조1300억원, 영업이익은 6조6000억원으로 두 분기 연속 6조원대 영업이익에 머물렀다. 반도체 업황 회복은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지만, 디스플레이 사업에서 깜짝 흑자를 내면서 시장 기대치를 웃돈 것으로 분석됐다. 사진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딜라이트. /연말뉴스

## 주주환원 방안 발표 연기... “불확실성 확대 영향”

이명진 부사장 “내년 초에 공유할 것”

삼성전자는 31일 최근 글로벌 반도체 업황 등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당초 예정했던 중장기 주주환원 방안 발표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명진 IR담당 부사장은 이날 2분기 실적 공시 직후 진행된 컨퍼런스콜에서 “글로벌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하고, 대외환경 변화가 새로운 도전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현재 시점에서 이익 현금흐름(FCF)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이같이 밝

혔다. 이 부사장은 “올해 실적이 확정되고 내년 실적의 가시성이 확보되는 내년 초에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삼성전자는 올초 ‘2018년 4분기 실적 공시’를 하면서 “(주주환원책의 토대가 되는) FCF 규모를 중간 점검하고, 3개년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해 올 2분기 실적 발표 때 공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삼성전자는 이날 실적 공시에 앞서 이사회를 열고 1주당 354원의 분기 현금 배당금을 지급하는 안건을 의결했

다. 배당금 총액은 2조4046억원으로, 배당 기준일은 지난달 30일이며 다음달 20일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1년치 배당 예정액(약 9조6000억원)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이다.

시가 배당률은 보통주가 0.8%이고, 종주주는 0.9%다. 배당금은 액면분할 이전으로 산정하면 주당 1만77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삼성전자는 올 2분기 말 현재 순현금이 83조8400억원으로, 1년 전(69조5900억원)보다 20.5%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재용 기자

## 삼성전자 언팩 D-7

### 갤럭시 노트10 + α는?

삼성전자가 하반기 주력 IT기기인 ‘갤럭시노트10’의 언팩(제품 공개)을 1주일여 앞둔 가운데, 갤럭시 노트10과 함께 나올 ‘플러스알파’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자사 뉴스룸을 통해 갤럭시탭 S6와 갤럭시 워치 액티브2를 공개했다.

삼성전자는 31일과 8월 5일 양일에 걸쳐 갤럭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제품 외형과 스펙 등을 밝힐 예정이다.

다음달 7일 열리는 언팩 ‘조연’이 일부 확정된 셈이다. 삼성전자는 언팩 행사 때마다 신형 스마트폰과 함께 새로운 주변 기기를 발표해왔다. 갤럭시 탭과 워치 신형 실물도 언팩에서 처음 소개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다만, 삼성전자가 최근 모바일 시장에서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또다른 조연에 대한 기대도 남다른 상황이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제품은 새로운 갤럭시 버즈다. 처음 출시된 불과 6개월만 지난 만큼, 신제품보다는 새로운 색상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로라 글로우가 주인공이다. 외신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갤럭시 노트10에 다채로운 느낌을 주는 오로라 글로우 색상을 새로 추가할 예정이다. 이번 언팩에서도 갤럭시 버즈 오로라 글로우를 함께 내놓지 않겠냐는 추측이 나온다.

다채로운 컬러도 언팩 주인공을 껴

▶오로라 글로우 컬러 예상도. /트위터 Ishan Agarwal

찰 수 있다. 국내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KT와 SKT에 독특한 컬러를 가진 갤럭시 노트10을 따로 공급하기로 했다. 지난 갤럭시S10에서 시야각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이는 ‘그라데이션’을 강조했던 만큼, 어떤 색상이 출시될지 관심이 높다.

갤럭시북 후속작도 물망에 올랐다. 새로운 갤럭시 탭 티저 영상에 키보드 이미지가 노출되면서다. 갤럭시북은 태블릿형 PC로, 스냅드래곤 855를 AP로 사용하면서도 윈도10을 장착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델이다. 최근 국내에서 블루투스 인증을 통과하면서 하반기 출시가 유력시된다.

S펜이 독자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 언팩 초대장에 S펜을 전면에 내세운 바 있다. 일부에서 나온 얘기처럼 카메라를 장착하고 나오지는 않을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31일 컨퍼런스콜에서 S펜으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기대감에 불을 지폈다.

구체적으로는 S펜을 화면에 대지 않아도 작동할 수 있는 ‘에어커맨드’나 사진 혹은 영상을 편집하는 기능이 거론된다. 갤럭시탭 S6 후면에 붙어 무선 충전을 받을 수도 있을 전망이다. /김재용 기자

